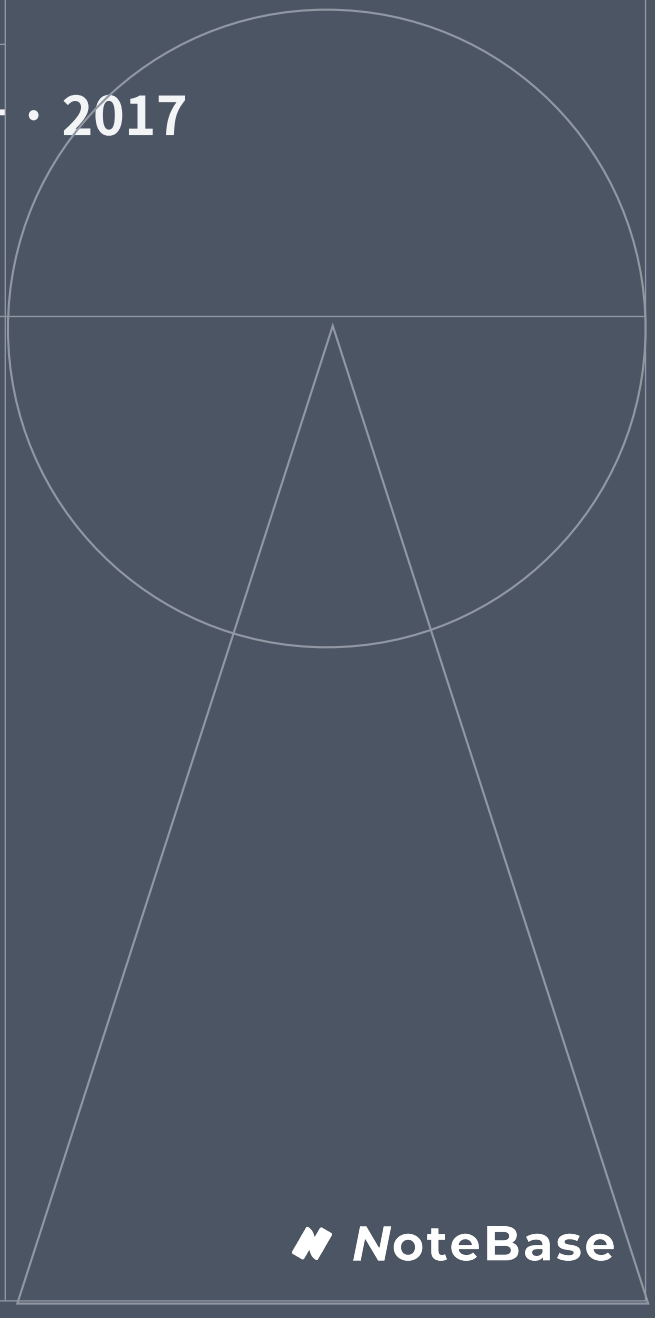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7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7

문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조는 이진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석이정전」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이 나라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곧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① 5세기 후반부터 급성장해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②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③ 시조는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을 하였다고 전한다.

④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밑줄 친 '이 나라'가 어느 가야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 나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시조 이진아시왕, 도설지왕까지 16대 520년, 뇌질주일(이진아시왕의 별칭)이라는 단서를 통해 '이 나라'가 대가야(고령 지역의 가야)임을 확정한 뒤, 각 선지가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지를 따진다.

핵심 개념

제시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인용된 최치원의 「석이정전」 내용으로,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 감응되어 뇌질주일과 뇌질청예 두 아들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금관가야(금관국)의 시조 수로왕의 별칭이라는 이른바 '대가야 이성설화'이다. 밑줄 친 '이 나라'는 뇌질주일(이진아시왕)이 왕이 된 나라이므로 대가야를 가리킨다. 한편 시조가 아유타국 공주(허황옥)와 혼인하였다는 전설은 금관가야 시조 수로왕에 관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으로, 대가야가 아니라 금관가야의 건국 설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대가야는 5세기 후반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으며,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고(479년 남제에 조공) 소국들을 통합하는 등 가야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② O: 대가야의 왕도인 고령 지역에는 대규모 고분군인 지산동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가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③ X: 시조가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전설은 대가야가 아니라 금관가야(금관국) 시조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인 설화이다.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왕(뇌질주일)에 관한 설화에는 아유타국 공주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④ O: 대가야는 전성기에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남원 등)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건국 설화를 뒤섞어 헷갈리게 하는 데 있다. 제시문 자체에 뇌질주일(대가야)과 뇌질청예(금관가야, 수로왕)가 형제로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설화 내용을 혼동하여 아유타국 공주 혼인 전설을 대가야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밑줄 친 '이 나라'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뇌질주일=이진아시왕=대가야)를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여러 인물이나 나라가 나란히 언급될 때는 밑줄이나 지시어가 정확히 어느 대상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정한다. 이 문제처럼 대가야와 금관가야가 형제 설화로 함께 등장하는 경우, 각 나라의 시조와 고유한 설화(대가야-이진아시왕/뇌질주일, 금관가야-수로왕/허황옥·아유타국 공주)를 짝지어 구분해 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대가야: 시조 이진아시왕(뇌질주일), 도읍 고령, 대표 유적 지산동 고분군, 5세기 후반 급성장하여 후기 가야 연맹 주도, 전성기에 전라북도 일부까지 세력 확장. 금관가야: 시조 수로왕(뇌질청예), 도읍 김해,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과 혼인 전설, 전기 가야 연맹 주도.

NoteBase

문 2.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ㄴ.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문과·잡과)와 음서제의 운영 방식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국자감시의 응시 대상, 잡과 합격 기술관의 승진 상한, 음서 대상의 시대별 변화가 핵심 비교 포인트이다.

핵심 개념

고려시대 과거는 제술업(문학적 재능·정책 논술 시험)과 명경업(유교 경전 암송·해석 시험)으로 나뉘었는데, 실제 관료 사회에서는 제술업 출신이 더 중시되어 요직에 등용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국자감시(국자시, 일명 사마시)는 국자감 소속 학생만이 아니라 12공도(사학) 유생과 지방 향교 유생까지 응시할 수 있었던 예비 시험이었다.
조선시대 잡과(역과·의과·음양과·율과) 합격자는 각 관청(사역원·전의감·관상감·형조 등)의 기술관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역관 등 일부는 해당 관청에서 정3품 당상관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음서의 대상이 고려시대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고려는 5품 이상 관원의 자손까지 음서 혜택을 받았지만, 조선은 그 대상이 2품 이상 관원의 자손 등으로 좁혀졌고,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청요직을 포함한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고려시대에는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 O, 실제로 제술업 급제자가 요직에 더 많이 등용되어 명경업보다 사회적으로 우대받았다.
ㄴ.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 X, 국자감시는 국자감 학생뿐 아니라 12공도 유생과 지방 향교 유생도 함께 응시할 수 있는 예비 시험이었다.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 → '국자감 학생과 사학·향교 유생 등을 함께 대상'으로 고쳐야 한다.
ㄷ. 조선시대에 잡과에 합격한 기술관은 해당 관청에서 최고 정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 O, 잡과 출신 기술관 중 역관 등은 해당 관청 내에서 정3품 당상관까지 오를 수 있었다.
ㄹ.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 관리까지 진출하였다 → X, 조선시대에는 음서 대상이 고려시대보다 축소되었고, 음서로 등용되더라도 문과에 급제하지 않으면 고위 관직·청요직으로 진출하기 어려웠다. '고려시대와 동일' → '고려시대보다 축소'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을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국자감시라는 명칭만 보고 응시 대상을 국자감 학생으로 한정해 버리는 실수이다. ㄹ을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음서제가 고려와 조선 모두 있었다는 점만 기억하고 그 대상 범위와 실제 관직 진출 효과가 시대별로 달라졌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이다. ㄷ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잡과 출신 기술관의 지위를 지나치게 낮게만 생각해 승진 상한을 실제보다 낮게 오해하는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술업·명경업, 국자감시, 잡과, 음서 중 어느 제도가 나오든 '누가 응시 대상인지'와 '실제로 어디까지 승진·진출할 수 있었는지'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접근한다. 특히 조선시대 제도를 고려시대와 '동일하다'고 서술하는 선지는 축소·변화된 지점이 있는지부터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고려: 제술업>명경업 우대, 국자감시는 국자감 학생+사학·향교 유생 응시. 조선: 잡과 합격 기술관은 정3품 당상관까지 승진 가능(역관 등), 음서 대상은 고려보다 축소되고 문과 급제 없이는 고위직 진출 제한.

NoteBase

문 3.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국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헌 등을 통해 미국과 ㉠을(를) 체결하였다.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은 1882년 신헌과 미국 대표 슈펠트가 체결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한 미국의 통상 요구, 신미양요에서의 조선군 항전과 미군 퇴각, 이후 신헌을 전권대관으로 하여 체결된 조약이라는 서술이 모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 경위와 일치한다. 이 문제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 배경과 조약 내용을 다른 조약(조영 조약,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은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으며,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조약에는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 조정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 관세 자주권을 일부 인정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조일 수호 조규(1876)가 무관세·해안 측량권 등 불평등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과 대비되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무항세 조항은 조일 통상 장정(1876년 및 1883년 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은 1883년에 체결되어 조미 조약보다 시기적으로 뒤에 맺어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 틀린 표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에 체결되었고,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은 1883년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조미 조약이 조영 조약보다 먼저 맺어졌으므로 순서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 틀린 표현. 이러한 조항은 조일 통상 장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후 방곡령 시행의 배경이 되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이 아니다.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 틀린 표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알선과 중재를 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청이다. 청은 러시아와 일본 세력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 맞는 표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조약을 맺은 어느 한쪽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조미 조약과 조영 조약, 조일 통상 장정의 체결 시기와 내용을 뒤섞어 기억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특히 양곡의 무제한 유출·무관세·무항세 조항은 일본과 맺은 조약의 내용이고, 알선과 중재의 주체는 일본이 아니라 청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신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임을 먼저 확정한다. 이후 각 선지에 등장하는 조약 체결의 시기 순서, 알선국, 조항 내용을 각각 어느 조약의 특징인지 하나씩 대응시켜 소거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은 청의 알선, 거중 조정 조항, 최혜국 대우 조항이 핵심이며 조영 조약(1883)보다 먼저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무항세는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암기한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형성되어 자치 기구와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상설 등은 성명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이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진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족회중앙총회로부터 개편 조직되었다.

<보 기>
ㄱ.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ㄷ.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이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전개된 독립운동 사실만을 골라내는 문제이다. 지문의 '신한촌', '이상설', '성명회', '대한국민의회', '전로한족회중앙총회'는 모두 러시아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이다. 즉 '이곳'은 연해주이며, <보기>의 ㄱ~ㄹ 중 연해주에서 일어난 사실만 골라야 한다.

핵심 개념

연해주 독립운동=신한촌(한인 집단 거주지)을 중심으로 자치 기구와 학교가 세워졌고, 1910년 이상설·유인석 등이 성명회를 조직해 한일 병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이후 1911년 권업회가 조직되어 기관지 권업신문을 발행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1914년에는 이상설·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개편되어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하였다. 반면 신흥강습소(이후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남만주) 삼원보에서 설치되었고, 동제사는 상하이에서 신규식·박은식 등이 조직한 단체이므로 연해주와는 지역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권업회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 O. 권업회는 1911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되어 신한촌을 기반으로 활동한 자치·독립운동 단체이므로 '이곳'(연해주)의 사실로 옳다.
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 X. 신흥강습소는 서간도(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연해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실이다.
ㄷ.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벌였다 → O.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연해주에서 이상설·이동휘를 중심으로 수립된 정부 조직으로, '이곳'의 사실로 옳다.
ㄹ. 신규식, 박은식 등의 주도로 동제사가 조직되었다 → X. 동제사는 1912년 중국 상하이에서 신규식·박은식 등이 조직한 단체로, 연해주가 아니라 상하이의 사실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며 정답은 ②이다.

오답 포인트

①(ㄱ,ㄴ)은 신흥강습소를 연해주의 사실로 착각한 경우이고, ③(ㄴ,ㄹ)과 ④(ㄷ,ㄹ)은 서간도의 신흥강습소나 상하이의 동제사를 연해주와 혼동한 경우이다. 지역별 독립운동 단체를 지명과 인물만으로 암기하면 헷갈리기 쉬우므로, 반드시 '어느 지역'에서 조직되었는지를 함께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밑줄 친 지역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신한촌, 성명회, 대한국민의회, 전로한족회중앙총회 같은 단서만 제시하는 문제는 연해주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서술이다. 이런 단서가 나오면 곧바로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신한촌, 대한국민의회를 연해주 계열로 묶고, 신흥강습소(서간도)와 동제사·대동단결선언(상하이)은 별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연해주=신한촌·성명회·권업회·대한광복군 정부·대한국민의회,
서간도=경학사·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부민단, 상하이=동제사·신한청년당·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지역별 단체를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

③ 상경(上京)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條坊)을 나누었다.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발해의 대외 무역, 도성 구조, 중앙 관제 등 통치 체제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지의 세부 사실을 하나씩 검증해야 한다.

핵심 개념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을 바탕으로 국왕을 황제국 수준의 칭호로 부르기도 하였다. 대당 무역에서는 모피류와 축산물, 광물 등을 수출하였다.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떠 바둑판 모양의 조방제로 구획되었다. 중앙 관제는 3성 6부제를 바탕으로 하되 명칭과 운영 방식을 독자적으로 변형하였고, 6부 등 주요 관서의 장관은 원칙적으로 1인씩 임명하는 체제였다.

선지별 해설

①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 등으로 칭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정혜공주묘지·정효공주묘지 등 발해 왕실 관련 기록에서 국왕을 황제국 수준의 칭호로 부른 사례가 확인되며, 발해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② 모피, 우황,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발해는 당과의 교역에서 담비 가죽 등 모피류, 우황, 구리, 말과 같은 특산물을 수출하였다.
③ 상경이 당나라 도성을 본떠 조방을 나누었다는 설명은 옳다. 발해의 수도 상경성은 당의 수도 장안성을 모델로 삼아 궁궐과 시가지를 바둑판 모양의 구획(조방제)으로 정비하였다.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의 장관을 임명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발해는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는데, 6부 등 주요 중앙 관서의 장관은 원칙적으로 각 부서마다 1인씩 임명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각각 복수의 장관을 임명하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발해가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했다는 사실들로, 옳은 설명이라는 점에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④는 발해의 중앙 관서 운영에서 장관 정원을 실제보다 많게 서술한 오류로, '복수의 장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해 관련 문제는 대외 무역품, 도성 구조, 통치 체제(중앙·지방 관제) 세 축으로 자주 출제된다. 중앙 관서의 장관 수처럼 구체적인 숫자·정원 표현이 나오면 과장되거나 축소된 서술이 아닌지 의심하고 접근한다.

암기 포인트

발해 대당 수출품: 모피, 우황, 구리, 말. 상경성: 장안성 모방, 조방제. 중앙 관제: 3성 6부(독자적 명칭), 주요 관서 장관은 원칙적으로 1인 임명.

NoteBase

문 6.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68년: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명주베 1필, 삼베 3필을 받아왔다.
◯ 1568년: 쌀 4섬 5되와 베 10필, 콩 2섬으로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다.
◯ 1569년: 노비 석정이 와서 올해 논의 총 수확이 모두 83섬이라고 말했다.
◯ 1570년: 이효원이 찾아와 호조에 속한 공장(工匠)이 만들어 파는 충정관(沖靜冠)의 구입을 권하였다.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다.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 발췌문에 나오는 개별 사실들(녹봉 수령, 토지 매입, 논 수확, 관영 수공업 물품 구입)을 각각 조선시대 경제 제도와 연결지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이다. 특히 국가가 거두는 전세와, 지주 개인이 소작인에게서 거두는 병작반수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 읽는 순서

먼저 자료의 각 항목이 무엇에 관한 기록인지 나눈다. 1568년 광흥창 기록은 관원이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장면이고, 두 번째 1568년 기록은 관원이 사재로 이형의 밭을 매입하는 장면이며, 1569년 기록은 관원이 매입한 그 논에서 노비를 통해 수확량을 보고받는 장면이고, 1570년 기록은 관영 수공업 소속 공장이 만든 물품을 사적으로 구입 권유받는 장면이다. 각 장면에서 관원이 국가(관)의 입장인지 개인 지주의 입장인지를 구분해야 선지 판단이 정확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 가서 받았다 → O. 조선시대 문무 관원의 녹봉은 광흥창에서 관장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관원이 광흥창에서 쌀·콩·베 등을 받아온 자료 내용과 일치한다.
② 이 관원이 이형에게 산 밭은 병작반수의 형태로 경작을 시킬 수 있었다 → O. 관원이 사재로 매입한 밭은 개인 소유지이므로, 소작인에게 맡겨 수확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 병작반수 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당시 널리 행해지던 지주 경영 방식이다.
③ 이 관원은 논의 총 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다 → X.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총 수확의 10분의 1을 거두는 방식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전세(조세)의 수취 방식이지, 개인 지주가 자신이 매입한 논에서 경작하는 소작인으로부터 거두는 방식이 아니다. 이 관원은 이 논의 국가에 대한 납세자일 뿐이며, 소작인에게서는 수확량을 절반씩 나누는 병작반수로 거두었으므로 10분의 1 수조라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④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 O. 관청에 소속되어 부역으로 물품을 만들던 공장들은 남는 시간에 물품을 만들어 사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이효원이 공장이 만든 충정관의 구입을 권한 자료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국가의 전세율을 떠올려, 이를 개인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수취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오답 함정이다. 자료에서 논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 관원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에 대한 납세(전세)와 지주가 소작인에게서 거두는 지대(병작반수)는 서로 다른 관계라는 점을 놓치면 ③을 옳은 서술로 잘못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 속에서 논밭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문제 되는 수취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것인지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것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거두는 몫은 전세(대체로 수확의 10분의 1 수준)이고, 지주가 소작인에게서 거두는 몫은 병작반수(수확의 절반)라는 두 수취 관계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암기 포인트

녹봉 지급 기관은 광흥창, 지주의 소작 경영 방식은 병작반수(수확 절반 분배), 국가에 내는 토지세는 전세(수확의 10분의 1 수준), 관영 수공업 소속 공장은 부역 외 시간에 사적으로 생산·판매가 가능했다는 네 가지를 짝지어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7. 신라 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④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진성왕(재위 887~897) 재위 기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 시기(효공왕 대)에 일어난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신라 말 각지에서 호족 세력이 봉기하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정오를 가릴 수 있다.

핵심 정리

진성왕 대(887~897)에는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방 곳곳에서 반란과 호족의 자립이 잇따랐다. 진성왕 3년(889)에는 중앙의 조세 독촉에 반발해 사벌주(상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고, 같은 해 견훤이 무진주(광주)를 근거지로 군사를 일으켜 후백제 건국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북원(원주)의 호족 양길의 세력 아래 있던 궁예가 부하를 이끌고 명주(강릉) 관할 군현을 공격하며 세력을 확장한 것도 진성왕 재위 중(894년 무렵)의 일이다. 반면 궁예가 나라를 세운 뒤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꾼 것은 911년의 일로, 진성왕이 897년에 효공왕에게 양위한 뒤 한참 지난 효공왕 대의 사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견훤이 무진주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O, 진성왕 3년(889) 견훤이 무진주를 근거로 군사를 일으켜 이후 후백제 건국으로 이어졌으므로 진성왕 대의 사실이다.
② 궁예가 국호 마진을 태봉으로 바꾸었다. → X, 궁예가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꾼 것은 911년으로 효공왕 대의 일이다. 진성왕은 897년에 이미 왕위에서 물러났으므로 진성왕 대의 사실이 아니다.
③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O, 진성왕 3년(889)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조세 수취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진성왕 대의 사실이다.
④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였다. → O, 진성왕 재위 중 북원의 호족 양길이 부하 궁예를 보내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하게 하였으므로 진성왕 대의 사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889년을 전후해 진성왕 재위 중에 일어난 지방 반란·호족 봉기라는 공통점 때문에 진성왕 대의 사실로 쉽게 인정하게 되지만, ②는 궁예가 이미 독자 세력으로 성장해 국가 체제를 갖춘 이후의 사건이라 시점이 크게 뒤(911년, 효공왕 대)로 넘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궁예 관련 사건을 모두 같은 시기로 뭉뚱그려 암기하면 이런 함정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라 말 사건을 물을 때는 인물이나 지명만 보지 말고 '봉기·자립 단계'인지 '국가 체제를 갖춘 이후 단계'인지를 구분한다. 진성왕 대(887~897)는 견훤·원종과 애노·양길(및 부하 궁예)의 초기 봉기가 겹치는 시기이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국호를 마진으로, 다시 태봉으로 바꾼 것은 그보다 뒤인 효공왕 대의 일임을 시간 축으로 나누어 기억한다.

암기 포인트

진성왕 대(889 전후): 견훤 무진주 거병, 원종·애노 사벌주 반란, 양길의 부하 궁예의 명주 관할 군현 공격. 효공왕 대(901~911):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 → 국호 마진(901) → 국호 태봉(911)으로 시기를 나누어 정리한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벌이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 (중략) … 성책(城柵)의 축조는 모두 둥근 형태로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았다. … (중략) …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는 모두 얼음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 (중략) … 장사를 후하게 지냈으며, 곽(槨)은 사용하였으나 관(棺)은 쓰지 않았다.
— 『삼국지』 —

<보 기>
ㄱ.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ㄴ.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실린 특정 국가의 풍속 기록을 읽고 그 국가가 어디인지 판별한 뒤, 그 국가의 실제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형벌·순장·장례 풍습을 종합해 부여임을 알아채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의 단서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 엄격한 형벌, 도둑질에 대한 12배 배상(1책 12법), 감옥처럼 둥글게 쌓은 성책, 여름철 장례에 얼음을 사용하는 후장(厚葬) 풍습, 곽은 쓰되 관은 쓰지 않는 장례법은 모두 부여의 풍속으로 알려져 있다. 옥저의 골장제(가족 공동 무덤에 뼈를 모으는 풍습)나 고구려의 서옥제·부경과는 구별되는 부여만의 특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하였다 → O. 부여는 마가·우가·저가·구가처럼 가축의 이름을 딴 관직을 두었고,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는 부여의 대표적 정치 조직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ㄴ. 국왕의 장례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였다 → O. 부여에서는 국왕이 죽으면 옥갑이라는 옥으로 만든 장례용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부여 왕실의 장례가 매우 후하게 치러졌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옳은 설명이다.
ㄷ.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갖고 있었다 → X. 부경은 고구려의 풍속이다. 고구려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두어 곡식을 저장하였는데, 이는 제시문이 설명하는 부여의 특징이 아니다.
ㄹ.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의 곽 속에 넣어 매장하였다 → X. 이는 옥저의 골장제(가족 공동 무덤 풍습)에 해당한다. 부여는 곽은 쓰되 관은 쓰지 않는 장례를 치렀을 뿐, 온 가족을 하나의 곽에 함께 매장하는 것은 옥저의 풍습이므로 부여의 특징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형벌·순장·후장 풍습만 보고 곧바로 옥저나 고구려로 착각하기 쉬운데, 12배 배상과 얼음을 이용한 여름철 장례, 둥근 성책 등은 부여를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이다. 또한 ㄷ의 부경(고구려)과 ㄹ의 골장제(옥저)를 부여의 풍속과 혼동하지 않도록 각 국가의 고유한 풍습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형벌이 엄격하고 도둑질에 대해 배상 비율(12배)이 언급되며, 순장·후장 풍습과 곽은 있으나 관이 없다는 장례 방식이 나오면 부여로 판단한다. 이후 <보기>에서 가축 이름을 딴 관직(마가·우가·저가·구가)과 옥갑을 이용한 왕실 장례가 나오면 부여의 특징으로 옳은 진술로 처리하고, 부경(고구려)이나 골장제(옥저)처럼 다른 국가의 풍속이 섞여 나오면 오답으로 걸러낸다.

암기 포인트

부여: 1책 12법(도둑질 12배 배상), 순장과 후장(곽은 있으나 관은 없음), 여름철 얼음을 이용한 장례, 옥갑을 이용한 왕실 장례, 마가·우가·저가·구가 등 가축 이름을 딴 관직과 사출도. 고구려: 서옥제, 부경(집집마다 작은 창고). 옥저: 골장제(가족 공동 무덤), 민며느리제.

NoteBase

문 9.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하였다.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③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이 내각'은 초정부적 비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고 박정양, 유길준 등 개화 인사가 참여했다고 하였으므로 제1차 갑오개혁(1894)을 이끈 김홍집 내각을 가리킨다.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갑오개혁 때에만 존재했다가 제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며 폐지된 기구이므로, 이 문제는 군국기무처가 활동하던 시기의 재정 개혁 내용과 그 이후(제2차 갑오개혁, 대한제국기)의 재정 기구를 구별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호조=조선 전기부터 있던 전통적 재정 담당 관청으로 갑오개혁 이전 체제. 탁지아문=제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국가 재정을 일원적으로 관할하도록 설치한 기구(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의 분리를 지향). 탁지부=제2차 갑오개혁의 관제 개편(1894년 말)으로 8아문이 7부로 바뀌면서 탁지아문이 명칭을 바꾼 기구로,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이후 시기의 명칭이다. 내장원=1899년 이후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시기에 궁내부 산하에서 광산, 홍삼 전매 등 황실 재원을 관할하며 비대해진 기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하도록 한다. → 호조는 갑오개혁 이전의 재정 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한 개혁에서는 오히려 호조를 없애고 재정 일원화 기구를 새로 세웠으므로 옳지 않다.
②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제1차 갑오개혁의 핵심 재정 개혁으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모아 일원화하였으므로 옳다.
③ 궁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도록 한다. → 내장원의 재정 확대는 1899년 이후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의 일로, 군국기무처가 활동하던 1894년보다 훨씬 뒤의 일이므로 옳지 않다.
④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 탁지부라는 명칭은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뒤인 제2차 갑오개혁의 관제 개편에서 등장하므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한 이 내각의 개혁안으로는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탁지아문'과 '탁지부'라는 명칭의 유사성을 이용한 함정이 핵심이다. 두 기구 모두 국가 재정을 일원적으로 관할한다는 점은 같지만, 탁지아문은 군국기무처가 활동한 제1차 갑오개혁 시기의 명칭이고 탁지부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이후인 제2차 갑오개혁 관제 개편의 명칭이라는 시기 차이를 놓치면 ④를 고르기 쉽다. 또한 호조(갑오개혁 이전)와 내장원(대한제국 광무개혁)은 시기 자체가 제시문과 맞지 않는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군국기무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개혁은 제1차 갑오개혁으로 한정하고, 이 시기의 재정 기구는 탁지아문임을 먼저 떠올린다. 탁지부, 내장원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시기가 다른 기구 이름이 선지에 섞여 나오면 각 기구가 등장한 시점(제2차 갑오개혁, 대한제국 광무개혁)을 함께 따져 소거한다.

암기 포인트

군국기무처(제1차 갑오개혁, 김홍집 내각)-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 / 제2차 갑오개혁(군국기무처 폐지 이후)-8아문을 7부로 개편하며 탁지부로 명칭 변경 / 대한제국 광무개혁(1899년 이후)-궁내부 산하 내장원이 광산·홍삼 등 황실 재원 관할.

NoteBase

문 10. 사림의 문화를 반영한 16~17세기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정의 「풍죽도」
② 심사정의 「초충도」
③ 어몽룡의 「월매도」
④ 황집중의 「묵포도도」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16~17세기(조선 중기)에 활동한 사림 출신·문인 화가들의 사군자화(매·난·국·죽 등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의 그림)를 골라내고, 그중 활동 시기가 다른 화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사림의 문화는 절의와 지조를 중시하였으므로 매화·대나무·포도 등을 그린 사군자화가 그 정신을 반영한 대표적인 그림으로 꼽힌다.

핵심 정리

이정(1554~1626)은 왕실 종친 출신의 화가로 묵죽화(먹으로 그린 대나무 그림)에 뛰어나 「풍죽도」 등을 남겼다. 어몽룡(1566~?)은 묵매화의 대가로 「월매도」를 그렸다. 황집중(1533~?)은 묵포도화로 이름이 높아 「묵포도도」를 남겼다. 이 세 사람은 모두 16세기 후반~17세기 초에 활동하며 사군자화로 문인의 절개를 표현한 화가들이다. 반면 심사정(1707~1769)은 18세기(조선 후기, 영·정조 시기)에 활동한 화가로, 정선의 화풍을 이어받아 진경산수화와 남종화풍의 그림을 많이 남겼으며, 초충도(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 역시 그의 작품으로 전하지만 그의 활동 시기는 16~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이정의 「풍죽도」 → O. 이정은 16세기 후반~17세기 초에 활동한 왕실 종친 화가로 묵죽화의 대가이며, 「풍죽도」는 사림 문화의 절의 정신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군자화이다.
② 심사정의 「초충도」 → X. 심사정은 18세기(1707~1769)에 활동한 조선 후기 화가로, 16~17세기라는 시기 조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그림이 정답이다.
③ 어몽룡의 「월매도」 → O. 어몽룡은 16세기 후반~17세기 초에 활동한 묵매화의 대가이며, 「월매도」는 사림 문화를 반영한 사군자화이다.
④ 황집중의 「묵포도도」 → O. 황집중은 16세기에 활동한 묵포도화의 대가이며, 「묵포도도」는 사림 문화를 반영한 사군자화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정·어몽룡·황집중은 모두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사군자화의 대가로 시기 조건에 부합하지만, 심사정은 이들보다 한 세기 이상 뒤인 18세기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선지와 구별된다. 화가의 이름과 대표작(이정-대나무, 어몽룡-매화, 황집중-포도)을 짝짓는 데만 집중하면 시기 조건을 놓치기 쉬우므로, 발문의 '16~17세기'라는 시기 조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그림 제목과 화가의 짝짓기가 맞더라도, 발문에서 요구하는 시기(16~17세기, 즉 조선 중기)에 그 화가가 실제로 활동하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조선 중기의 사군자화 대가(이정-대나무, 어몽룡-매화, 황집중-포도)와 조선 후기의 화가(심사정, 정선, 김홍도 등)를 시대별로 구분해 두면 이런 유형의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선 중기 사군자화 3대가: 이정(대나무-풍죽도), 어몽룡(매화-월매도), 황집중(포도-묵포도도). 심사정은 18세기 조선 후기 화가로 진경산수·남종화풍과 연관된다.

NoteBase

문 11. 다음 기행문의 ㉠에서 출토한 유물로 적절한 것은?

며칠 전 나는 공주 시내에 있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은 송산리 고분군이었다. 그곳에는 ㉠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는(은) 연도(羨道)와 현실(玄室)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을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을 출토하였다.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이다.

①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옷차림의 토우
② 무덤 안에 놓여 있는 왕과 왕비의 지석
③ 무덤 안의 네 벽면을 장식한 사신도 벽화
④ 무덤 주위를 둘러싼 돌에 새겨진 12지 신상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기행문에 묘사된 무덤의 특징(벽돌로 아치형 연도와 현실을 조성, 금송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 중국 남조 양나라·왜와의 교류를 보여 주는 부장품)을 통해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무령왕릉을 찾아내고, 이 무덤에서 실제로 출토된 유물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령왕릉은 백제 웅진(공주) 시기의 왕릉으로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전축분)이며, 연도와 현실을 아치형으로 쌓았고 관은 일본(왜)에서만 자라는 금송으로 만들어 백제와 중국·왜의 교류를 보여 준다. 이 무덤이 다른 삼국의 왕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덤 안에서 왕과 왕비의 신원, 사망·매장 연대를 기록한 지석(매지권)이 함께 출토되어 피장자가 무령왕과 왕비임을 문헌 없이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삼국의 왕릉 가운데 주인공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의 유일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여러 옷차림을 한 토우는 주로 신라 고분(예 : 경주 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의 출토품이 아니다.
② O: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왕비 각각의 지석(매지권)이 발견되어 무덤 주인의 신원과 축조 연대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는 무령왕릉을 다른 백제 고분과 구별 짓는 대표적 출토 유물이다.
③ X: 네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는 무령왕릉이 아니라 바로 옆의 송산리 6호분이나 고구려 강서대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무령왕릉 내부에는 벽화 대신 연화문 등이 장식되어 있을 뿐 사신도 벽화는 없다.
④ X: 무덤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새기는 방식은 통일신라 시대 왕릉(예 : 김유신 묘, 성덕왕릉 등)에서 나타나는 양식으로,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의 양식과는 무관하다.

오답 포인트

무령왕릉이 벽돌무덤이라는 점에서 중국 남조 양식과의 관련성을 떠올리는 것까지는 맞았더라도, 사신도 벽화나 12지 신상처럼 다른 시기·다른 무덤 양식에 등장하는 장식 요소를 무령왕릉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벽화가 있는 무덤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신도를 떠올리는 습관은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을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벽돌무덤, 아치형 연도와 현실, 금송제 관, 중국 남조·왜와의 교류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곧바로 무령왕릉임을 확정하고, 이 무덤의 대표 출토품은 지석(매지권)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사신도 벽화나 12지 신상, 토우 같은 보기가 함께 나오면 이는 각각 송산리 6호분, 통일신라 왕릉, 신라 고분의 특징이므로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암기 포인트

무령왕릉 = 백제 웅진 시기, 벽돌무덤(전축분), 아치형 연도·현실, 금송제 왕·왕비 관, 지석(매지권) 출토로 피장자 확인, 중국 남조 양·왜와의 교류 증거. 사신도 벽화는 송산리 6호분, 12지 신상은 통일신라 왕릉의 특징으로 구분해 둔다.

NoteBase

문 12.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ㄴ.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였다.
ㄷ.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에 편입하였다.
ㄹ.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① ㄱ → ㄹ → ㄷ → ㄴ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ㄷ → ㄴ → ㄱ → ㄹ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1940년대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의 순서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동, 강령 발표, 군사 조직 통합, 헌법 개정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건들을 하나의 시간축 위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순서

ㄱ. 충칭 이동(1940년) → ㄹ.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1941년) → ㄷ.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편입(1942년) → ㄴ. 부주석제 신설과 김규식 부주석 취임(1944년)
임시정부는 1932년 상하이를 떠난 뒤 여러 지역을 거쳐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듬해인 1941년에는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정치·경제·교육의 균등)를 기초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광복 이후 세울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942년에는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면서 좌우 진영의 무력이 통합되었다. 이러한 통합의 흐름 속에서 1944년 제5차 개헌을 통해 주석·부주석제가 도입되어 김구가 주석, 김규식이 부주석을 맡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ㄹ→ㄷ→ㄴ: 충칭 이동(1940) → 건국강령 발표(1941) → 조선의용대 편입(1942) → 부주석제 신설(1944) 순으로 실제 사건 발생 순서와 일치한다. (O)
② ㄴ→ㄱ→ㄹ→ㄷ: 부주석제 신설(1944)을 가장 먼저에 배치하여 시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X)
③ ㄷ→ㄴ→ㄱ→ㄹ: 조선의용대 편입(1942)과 부주석제 신설(1944)을 충칭 이동(1940)보다 앞에 두어 순서가 틀렸다. (X)
④ ㄹ→ㄷ→ㄴ→ㄱ: 충칭 이동(1940)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여 순서가 완전히 역순에 가깝다. (X)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보다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충칭 정착과 건국강령 발표를 1940년대 초반 사건으로, 조선의용대 편입과 부주석제 신설을 그보다 뒤인 1942년과 1944년 사건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순서를 헷갈리기 쉽다. 특히 부주석제 신설(김규식)을 이동 직후의 사건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충칭 시기 임시정부 연표에서 1940년 충칭 정착·한국광복군 창설, 1941년 건국강령 발표, 1942년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편입, 1944년 제5차 개헌에 따른 주석·부주석제 도입이라는 네 개의 이정표를 순서대로 떠올리면 어떤 조합의 문제가 나와도 빠르게 배열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충칭 정착·광복군 창설(1940) → 삼균주의 기반 건국강령(1941, 조소앙) → 조선의용대 편입(1942, 김원봉) → 주석·부주석제 신설(1944, 김구·김규식) 순서로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① 그가 일으킨 난을 경계(庚癸)의 난이라고도 한다.

② 아들을 출가시켜 현화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③ 금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금 정벌론을 주장하였다.

④ 문벌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지덕쇠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밑줄 친 '그'가 누구인지 인물을 특정한 뒤, 그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선지에서 골라내는 문제이다.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은 점,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한 점, 남의 토지를 빼앗고 뇌물을 공공연히 받아 집에 썩는 고기가 수만 근이나 쌓였다는 점은 모두 고려 인종 대 외척으로서 권력을 독점한 이자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서술이다.

핵심 정리

이자겸은 경원 이씨 가문 출신으로 딸들을 예종·인종에게 잇달아 시집보내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스스로 국공에 올라 왕태자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고 생일을 인수절이라 칭하는 등 왕에 버금가는 위세를 누렸으며, 토지 탈점과 뇌물 수수로 축재하였다. 이후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가(이자겸의 난, 1126) 척준경에게 제거되었다. 이자겸 가문은 개경의 현화사를 원찰로 삼아 왕실 못지않은 불교 세력 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며, 아들을 그곳에 출가시켜 유대를 강화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일으킨 난은 흔히 '이자겸의 난'(또는 '이자겸·척준경의 난')으로 불리며, '경계의 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는다.
② O: 이자겸 가문은 현화사를 원찰로 삼아 불교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자겸은 아들을 현화사에 출가시켜 그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③ X: 금과의 군신 관계 요구에 반대하며 정벌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자겸은 실리를 앞세워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④ X: 지덕쇠왕설을 내세워 서경 천도를 주장하며 문벌귀족 세력을 억누르려 한 인물은 묘청이며, 이자겸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난의 명칭을 낯선 한자어(경계)로 바꿔치기하여 혼동을 유도한 오답이다. ③은 이자겸이 실제로는 금에 대해 온건·수용 노선을 취했다는 사실과 반대로 서술한 오답이다. ④는 이자겸의 난 직후에 일어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관련 내용을 이자겸의 행적으로 잘못 연결한 오답으로, 두 사건의 시기와 인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국공(國公) 자칭, 인수절, 토지 탈점과 뇌물 축재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이자겸을 먼저 떠올린다. 이후 선지에서 이자겸의 사실(현화사·척준경·금에 대한 사대 수용)과 묘청의 사실(지덕쇠왕설·서경 천도·금 정벌론)을 뒤섞어 놓았는지를 대조하며 인물별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겸=국공 자칭·인수절·토지 탈점·뇌물 축재·현화사 불교 세력과 유대·아들 출가·금의 사대 요구 수용·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킴(이자겸의 난). 묘청=지덕쇠왕설·서경 천도 주장·금국 정벌론·칭제건원 주장.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나타난 '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어떤 무리가 번성한 지 십 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으며, 양덕에서 군사를 동원해 포위했지만 끝내 체포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언급하고 있다. 이영창은 숙종 대 발생한 옥사에서 심문을 받은 인물로, 그 진술 속에서 언급된 도적 집단이 바로 장길산 무리이다. 따라서 이 글은 숙종 때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활동하며 관군의 토벌을 여러 차례 피한 장길산 무리에 대한 기록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장길산은 숙종 때 광대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로, 황해도 구월산을 근거지로 삼아 무리를 이끌었고 이후 평안도 등지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관에서 여러 차례 체포하려 했으나 끝내 붙잡지 못했으며, 숙종 23년 이영창 등이 연루된 옥사의 심문 과정에서 장길산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임꺽정은 명종 때 황해도에서 활동한 도적으로 장길산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이며, 홍길동은 연산군 때 활동한 도적으로 실존 인물이나 충청도가 아닌 경기·충청 일대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고 소설 속 인물과는 별개이다. 홍경래는 순조 때 인물로 세도 정치기의 사회 모순 속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임꺽정은 명종 때 양주 출신 백정으로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한 것은 맞으나, 제시문의 시기(숙종 대, 이영창 옥사와 연결)와 맞지 않는다. 임꺽정 무리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16세기 중반에 진압되었다.
② O. 장길산은 숙종 때 황해도를 근거지로 활동을 시작하여 평안도 등지로 세력을 넓혔고, 관군의 여러 차례 토벌에도 붙잡히지 않았다. 이영창의 심문 기록에서 장길산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과도 부합한다.
③ X. 홍길동은 연산군 때 활동한 실존 도적이지만, 제시문의 시기 및 정황과 맞지 않으며 충청도를 근거지로 삼았다는 서술도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④ X. 홍경래는 순조 때 몰락 양반으로 평안도에서 영세농·광산노동자 등을 규합해 봉기를 일으켰으나, 이는 19세기 초의 사건으로 숙종 대 이영창 옥사와는 시기가 전혀 다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시대가 다른 여러 도적·봉기 세력(임꺽정-명종, 장길산-숙종, 홍길동-연산군, 홍경래-순조)을 뒤섞어 놓아 활동 지역이나 인물상만 보고 고르면 틀리기 쉽다. 제시문의 '십 년 넘게 못 잡음', '양덕에서 포위했지만 실패', '이영창의 심문 기록'이라는 구체적 단서가 시대를 숙종 대로 특정해 주므로, 이 단서를 놓치고 지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임꺽정(①)을 고르는 오답이 나오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인물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을 때는 시기를 특정하는 단서(연루된 옥사, 지명, 서술어)를 먼저 찾아 시대를 좁힌 뒤, 그 시대에 해당하는 도적·봉기 세력을 선지에서 매칭한다. 조선 후기 대표 도적 집단은 명종의 임꺽정, 선조~인조 무렵의 검계 등 여러 무뢰배, 숙종의 장길산, 순조의 홍경래로 시대 순서를 함께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임꺽정(명종, 황해도, 백정 출신) / 장길산(숙종, 황해도·평안도, 광대 출신, 이영창 옥사에서 이름 거론) / 홍길동(연산군, 실존 도적) / 홍경래(순조, 평안도, 몰락 양반, 영세농·광산노동자 규합)의 순서와 특징을 짝지어 외워 둔다.

NoteBase

문 1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성록
ㄴ. 난중일기
ㄷ. 비변사등록
ㄹ. 승정원일기
ㅁ. 한국의 유교책판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시대에 편찬·기록된 여러 사료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실제 등재된 것을 정확히 골라내는 문제이다. 개별 사료의 성격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등재 여부라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일성록은 정조 이후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체 연대기로 2011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중에 쓴 진중일기로 2013년에 등재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왕명 출납 기관인 승정원에서 작성한 방대한 기록물로 2001년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유교책판은 조선 시대 유교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새긴 목판으로 2015년에 등재되었다. 이에 비해 비변사등록은 비변사에서 국정 논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는 크지만 세계기록유산으로는 등재되지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 옳은 사실이지만 등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승정원일기와 한국의 유교책판도 등재되어 있어 범위가 좁다.
② ㄱ, ㄴ, ㄹ → 일성록, 난중일기, 승정원일기가 모두 등재된 것은 맞지만 한국의 유교책판이 빠져 있어 오답이다.
③ ㄱ, ㄴ, ㄹ, ㅁ → 일성록, 난중일기, 승정원일기, 한국의 유교책판 네 가지 모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등재되지 않은 비변사등록(ㄷ)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옳은 조합이다.
④ ㄱ, ㄴ, ㄷ, ㄹ, ㅁ → 등재되지 않은 비변사등록(ㄷ)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비변사등록은 조선 후기 국정 최고 협의 기구인 비변사의 활동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이지만 세계기록유산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사료의 중요도와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혼동하면 ④번을 고르는 실수를 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제이므로 먼저 확실히 등재되었다고 알고 있는 항목(일성록, 난중일기, 승정원일기)을 기준으로 선지를 좁히고, 나머지 항목인 한국의 유교책판과 비변사등록 중 어느 쪽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비변사등록처럼 이름이 익숙하고 사료적 가치가 커 보이는 항목일수록 등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조선 관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한국의 유교책판, 동의보감 등이 등재되어 있고 비변사등록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6.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요,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회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려 하고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 자기들의 사욕을 달성하려 할 뿐이다.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학문을 밖(주자의 권위)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마음)에서 구한다고 선언하면서, 당대 학자들이 주자를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이름을 빌려 자기 뜻을 이루고 위세를 부리는 데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는 심즉리(心卽理)를 바탕으로 마음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양명학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며, 조선 후기 양명학을 체계화한 학자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문항은 제시문의 사상적 성격을 파악하여 그 학자에 대한 사실을 골라내는 인물 매칭형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제두는 조선 후기 강화학파를 이끈 학자로, 중국 왕수인의 양명학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 발전시켰다. 그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와 이를 실천하는 능력인 양능(良能)이 곧 참된 이치라고 보고, 이 본체성에 근거하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긍정하였다. 제시문에서 학문을 안에서 구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 그리고 주자의 이름만 빌려 사욕을 채우는 세태를 비판한 것은 주자학의 권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본체에서 진리를 구하려 한 양명학자의 태도와 정확히 부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양지와 양능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을 긍정하였다 → O. 제시문의 학자가 주장한 심학적 태도, 즉 마음 안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입장은 양지·양능의 본체성을 바탕으로 지행합일을 주장한 조선 후기 양명학자의 사상과 일치한다.
② 교조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 X. 주자학을 비판하다 사문난적으로 몰려 처형된 인물은 윤휴이다. 제시문의 학자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서민은 예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X.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대부·서민에게 같은 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송시열이며, 이는 양명학적 심학과는 무관한 주자학 정통 예론이다.
④ 유교문명 이외에도 유럽·회교·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시야를 넓혀 주었다 → X. 유교 문명권 밖의 세계, 즉 유럽·이슬람·불교 문명권을 소개하여 세계관을 넓힌 인물은 지봉유설을 저술한 이수광이며, 제시문의 심학적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핵심 문구인 '학문을 안에서 구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와 '주자를 빌려 사욕을 달성한다'는 표현에 주목하지 못하면, 단순히 '주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문난적으로 몰린 윤휴(②)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은 주자 개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이름을 빙자한 세태를 비판하며 마음 안에서 이치를 구하는 심학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므로 양명학자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서인 영수의 예론(③)이나 세계 문명 소개(④)는 제시문의 내용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학문은 안에서 구한다', '마음' 등 심학적 표현이 나오고 주자학의 권위나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면, 이는 조선 후기 양명학(강화학파)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주자를 비판하다가 처형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 윤휴, '왕과 사대부·서민의 예가 같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송시열, '서양·이슬람·불교 문명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수광으로 연결 짓는다.

암기 포인트

정제두-양명학·강화학파·양지양능·지행합일 / 윤휴-주자학 비판·사문난적·처형 / 송시열-서인 영수·왕과 사서(士庶)의 예 동일 주장 / 이수광-지봉유설·서양 및 이슬람·불교 문명 소개로 구분하여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ㄴ.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ㄷ.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ㄹ.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ㄷ → ㄱ → ㄴ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초까지 만주 지역 독립운동 관련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훈춘 사건, 대한독립군단의 자유시 이동, 미쓰야 협정, 한국독립군 조직이라는 네 사건의 연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바른 순서

ㄱ. 훈춘 사건(1920) → ㄴ. 대한독립군단의 자유시 이동(1921) → ㄷ. 미쓰야 협정(1925) → ㄹ. 한국독립군 조직(1930)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훈춘 사건은 일제가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스스로 공격하게 한 뒤 이를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만주로 출동시킨 사건으로, 1920년 가을에 일어났다. 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직후 일제가 독립군 근거지를 초토화한 경신참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네 사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ㄴ. 경신참변으로 근거지를 잃은 독립군 부대들은 밀산에 집결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고, 서일을 총재로 삼아 소비에트 러시아 영내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는 훈춘 사건 및 경신참변 이후인 1921년의 일로, ㄱ보다 뒤에 온다.
ㄷ. 미쓰야 협정은 일제가 만주 지역 무장 독립운동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인 봉천 군벌과 맺은 협정으로, 1925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만주 지역 독립군에 대한 중국 측의 단속과 인도가 강화되어 독립군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이자 한국독립군 조직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ㄹ. 한국독립당 산하의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1930년에 조직되었으며, 이후 중국군과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네 사건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훈춘 사건과 미쓰야 협정을 모두 일제가 주도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기를 혼동하여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가 많다. 훈춘 사건은 1920년 만주 출병의 구실을 만든 사건이고 미쓰야 협정은 1925년 만주 군벌과의 단속 협정이므로 5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대한독립군단의 자유시 이동을 자유시 참변 이후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유시로 이동한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 자유시에서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주 독립운동사 순서 문제는 사건의 성격보다 연도를 먼저 떠올려 배열한다. 봉오동·청산리 전투(1920) 직후 훈춘 사건과 경신참변(1920), 대한독립군단의 자유시 이동과 자유시 참변(1921), 3부 성립(1920년대 중반), 미쓰야 협정(1925), 3부 통합 운동과 국민부·혁신의회 성립(1920년대 말), 한국독립군·조선혁명군 조직 및 한중 연합 작전(1930년대 초)이라는 큰 흐름을 시간순으로 암기해 두면 어떤 조합으로 출제되어도 빠르게 배열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훈춘 사건(1920)→경신참변(1920)→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이동(1921)→자유시 참변(1921)→3부 성립(1923~1925)→미쓰야 협정(1925)→3부 통합운동(1920년대 말)→한국독립군·조선혁명군 조직 및 한중 연합 작전(1930년대 초) 순서로 흐름을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18. 다음 상황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의 삼례 집결을 도모하였고, 기병을 촉구하는 통문을 돌렸다. 통문에는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한 자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 기>

ㄱ.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다.

ㄴ.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었다.

ㄷ.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하였다.

ㄹ.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6월) 직후 전봉준이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농민군 재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을 돌린 상황이다. 이는 동학 농민 운동의 2차 봉기(반외세 봉기)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점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골라야 하므로, 보기의 각 사건이 1차 봉기(반봉건) 시기인지 2차 봉기(반외세) 시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바른 순서

1차 봉기: 고부 민란 → 황토현 전투(관군 격파) → 전주성 점령 → 전주 화약(정부와 농민군의 강화) → 집강소 설치.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2차 봉기의 계기) → 전봉준의 삼례 대도소 설치·재봉기 통문(제시문 상황) → 남접(전봉준)과 북접(손병희)의 논산 합류 → 공주 우금치 전투(관군·일본군 연합부대와 격돌) → 농민군 패퇴.

즉 황토현 전투와 전주 화약은 제시문 상황보다 앞선 1차 봉기 단계의 사실이고, 논산 합류와 우금치 전투는 제시문 상황 이후인 2차 봉기 단계의 사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ㄱ.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한 것은 1894년 4월로, 1차 봉기 초기 관군과의 첫 전투이다.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6월)보다 앞선 사실이므로 제시문 상황 이후가 아니다. → 제외.
ㄴ. 정부와 농민군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은 것(전주 화약)은 1894년 5월로, 전주성 점령 이후 정부군과 농민군이 개혁을 조건으로 강화한 사건이다. 이 역시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보다 앞선 사실이므로 제외.
ㄷ. 북접군과 남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집결한 것은 2차 봉기 과정에서 전봉준의 남접군과 손병희가 이끈 북접군이 힘을 합친 사건으로, 삼례에서의 재봉기 촉구 이후 우금치 전투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제시문 상황 이후의 사실이므로 해당한다.
ㄹ.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를 맞아 격돌한 것은 2차 봉기의 최대 격전으로, 논산 합류 이후에 벌어진 전투이다. 제시문 상황 이후의 사실이므로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황토현 전투와 전주 화약을 재봉기 관련 사건으로 착각하면 ①이나 ②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반봉건 성격의 1차 봉기 단계에서 일어난 일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라는 계기가 있기 전의 사실이다. 시간 순서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삼례 대도소 설치'라는 제시문의 상황 자체가 이미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 '이후'에 일어난 재봉기 준비 행동이라는 점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학 농민 운동 문제는 1차 봉기(고부 민란 → 황토현 전투 → 전주성 점령 → 전주 화약 → 집강소)와 2차 봉기(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삼례 재봉기 → 논산 합류 → 우금치 전투)의 두 단계로 나누어 각 사건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부터 분류한 뒤, 제시문이 그중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순서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1차 봉기 순서: 고부 민란 → 황토현 전투 → 전주성 점령 → 전주 화약. 2차 봉기 순서: 일본군 경복궁 습격 → 삼례 재봉기(대도소 설치) → 논산 합류(남접·북접) → 공주 우금치 전투.

NoteBase

문 19.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에서는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는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하였다.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에서는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후기 강목체 역사서들이 삼국 이전 및 삼국 시기의 역사를 어떻게 정통으로 규정했는지, 즉 학자별 정통론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정통론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 어느 국가(왕조)를 역사의 정통 계승자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서술 방식으로, 단군과 기자를 정통에 포함시키는지, 삼국을 무통(정통 없음)으로 보는지, 마한을 정통에 넣는지가 학자마다 달랐다.

핵심 정리

임상덕의 『동사회강』은 삼국을 무통으로 보고 마한을 정통에서 제외하였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단군-기자-마한을 정통으로 잇고 삼국은 무통으로 처리한 뒤 통일신라를 다시 정통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세웠다(이른바 삼한정통론).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은 기자의 정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보아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삼았다.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이들과 달리 단군을 정통의 출발점으로 삼아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으며, 단군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군을 정통의 시작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임상덕의 『동사회강』은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삼국을 무통으로 처리하고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의 흐름으로 삼았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단군을 정통의 출발점으로 포함시켜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마한-통일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는 설명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른 표현은 '단군을 정통에 포함시켜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를 정통으로 규정하였다'이다.
④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은 기자의 전통이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보아 기자-마한-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정통론 문제는 학자와 저서, 그리고 정통 계보(단군 포함 여부, 마한 정통 인정 여부, 삼국 무통 여부)를 서로 짝지어 혼동하기 쉽다. 특히 홍만종과 홍여하, 안정복의 계보가 비슷하게 마한과 신라를 언급하기 때문에 단군 포함 여부만으로 저서를 구분하지 않으면 오답에 이르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단군을 배제하였다'는 서술이 홍만종의 실제 입장과 반대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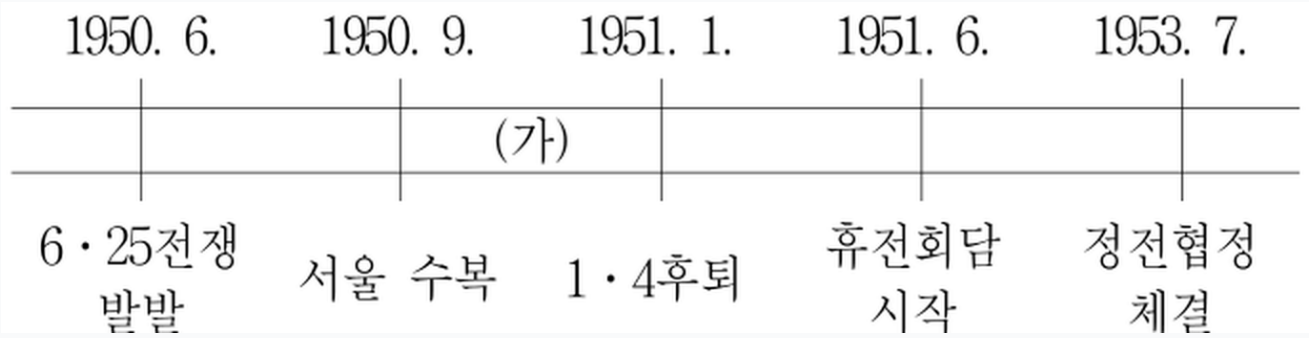
저서와 학자를 먼저 짝짓고, 그 다음 정통 계보에 단군이 들어가는지, 마한이 정통으로 인정되는지,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단군 포함 여부를 언급하는 선지는 특히 주의해서 실제 계보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임상덕 『동사회강』: 마한 정통 부정, 삼국 무통. 안정복 『동사강목』: 단군-기자-마한-(삼국 무통)-통일신라 정통. 홍여하 『동국통감제강』: 기자-마한-신라 정통. 홍만종 『동국역대총목』: 단군-기자-마한-통일신라 정통(단군 포함).

NoteBase

문 20.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6·25전쟁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제시된 연표는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1950년 9월 서울 수복, 1951년 1월 1·4후퇴, 1951년 6월 휴전회담 시작,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로 이어지며, (가)는 서울 수복(1950.9)과 1·4후퇴(1951.1) 사이의 시기이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인천상륙작전(1950.9)으로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였으나, 1950년 10월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에 따라 흥남 지역에 고립된 국군·유엔군과 피란민을 해상으로 철수시킨 흥남 철수 작전이 1950년 12월에 이루어졌고, 이후 서울을 다시 내주는 1·4후퇴(1951.1)로 이어졌다. 즉 흥남 철수는 서울 수복 이후·1·4후퇴 이전인 (가) 시기의 사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대규모 해상 작전인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다. → O. 흥남 철수는 1950년 12월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서울 수복(1950.9)과 1·4후퇴(1951.1) 사이인 (가) 시기에 해당한다.
②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단행하였다. → X. 반공 포로 석방은 1953년 6월로, 휴전회담 시작(1951.6) 이후이자 정전협정 체결(1953.7) 직전 시기에 해당하여 (가) 시기보다 훨씬 뒤의 사건이다.
③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다. → X. 맥아더 해임은 1951년 4월로, 1·4후퇴(1951.1) 이후이자 휴전회담 시작(1951.6) 이전 시기에 해당하여 (가) 시기보다 뒤의 사건이다.
④ 미국은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 X. 이는 애치슨 선언으로 1950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6·25전쟁 발발(1950.6)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가) 시기와는 무관하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모두 6·25전쟁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가) 시기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답이다.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사건 자체의 O·X가 아니라 제시된 시간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④는 6·25전쟁 발발 자체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연표의 시작점보다도 이전임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6·25전쟁 연표형 문제는 서울 수복(1950.9) → 흥남 철수(1950.12) → 1·4후퇴(1951.1) → 휴전회담 시작(1951.6) → 맥아더 해임(1951.4, 휴전회담 시작 직전) → 정전협정 체결(1953.7) → 반공 포로 석방(1953.6, 정전협정 직전)의 순서를 기준선으로 삼아 각 사건을 배치하면 빠르게 풀 수 있다. 애치슨 선언(1950.1)처럼 전쟁 발발 이전 사건이 선지에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자주 출제되므로 주의한다.

암기 포인트

6·25전쟁 발발(1950.6) → 서울 수복(1950.9) → 흥남 철수(1950.12) → 1·4후퇴(1951.1) → 맥아더 해임(1951.4) → 휴전회담 시작(1951.6) → 반공 포로 석방(1953.6) → 정전협정 체결(1953.7) 순서로 묶어 외워 둔다.

NoteBase